

전남 농·산·어촌 10개교 초등학생들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해요”

‘U-러닝’ 구축... 전자펜 이용 실시간 첨삭지도

올해부터 전남도내 농·산·어촌 10개교 초등학생들이 종이 교과서를 버리고, 노트북 형태의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첨단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공부하는 등 전남 농촌 교육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1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작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 U-러닝 학습 환경 구축 사업에 따라 최근 전남도내 농산어촌 지역의 10개 초등학교가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 학교는 여수 쌍봉·백초, 광양

북, 구례 중앙, 장흥 장동, 영암, 장성 분향·진원, 화순 도곡, 담양 고서초등학교 등이다.

이들 학교에는 각 1억 1천만원씩이 투입돼 디지털 학습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들이 안배됐다.

농산어촌 U-러닝 구축 사업은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를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한 수업 및 교육 활동이 가능한 ‘U-러닝’ 학교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으로, 각종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에는 2학년씩

전자칠판과 무선 인터넷 환경 등이 지원됐으며, 학생들에겐 디지털 교과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개인용 TPC(태블릿 PC·전자펜으로 화면 위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컴퓨터)가 제공됐다.

디지털 교과서란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대신하는 노트북 형태의 교과서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5학년용 6종(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음악, 영어), 6학년용 4종(국어, 사회, 수학, 과학)이 개발돼 있다.

교실의 수업 모습도 크게 달라졌다. 학생들은 전자펜을 이용해 공책에 필기를 하듯 디지털 교과서 화면 위에 글씨를 쓰고 지울 수 있고, 교사는 학생들이 각자 필기한 내용을 전자 칠판 화면으로 불러와 실시간 첨삭을 해주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도 가능하게 됐다.

도 교육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극복하고, 도시 학생과의 교육격차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흥 전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은 “교육 효과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교과서는 나후턴 전남의 교육 환경을 업그레이드 할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부터 4년째 디지털 교과서 시범사용 학교로 지정된 여수 백초 초등학교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송학산 화재 헬기 진화

15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용두동 학동마을 인근 송학산 일대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불이 나자 소방차 6대와 소방대원, 구청직원 등 50명이 현장에 출동,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이날 불로 입야 0.5ha가 탔다.

15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용두동 학동마을 인근 송학산 일대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불이 나자 소방차 6대와 소방대원, 구청직원 등 50명이 현장에 출동,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이날 불로 입야 0.5ha가 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양만권 산단 주민 비염·눈병 환자 많다

30.8%로 타지역보다 7.6%p 많아

광양과 여수 등 광양만권 산단지역 주민들이 일반 지역 주민보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눈병을 더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광양만권과 포항, 울산 등의 산업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노출수준 및 생체지표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광양만권 주민 2천568명(광양 1천 26명, 여수 1천 25명, 남해 517명) 중 알레르기성 비염을 경험한 이들은 전체의 30.8%로 비교군(23.2%)보다 7.6% 포인트 더 많았다.

최근 12개월 내에 비염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는 주민은 22.0%(비교군 15.8%)로 조사됐고, 치료 경험도 15.7%(비교군 6.6%)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눈병 경험자도 27.6%로 비교군(19.6%)보다 8% 포인트 높았으며, 최근 12개월내 증상 경험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노출수준 및 생체지표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이 밖에 포함 산업단지 지역 주민 1천43명에 대한 천식, 코막힘, 습진, 눈병의 경험 유무를 물어봤을 때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2분 해질 18시 41분 달돋이 -시-분 달질 09시 11분

외출땀 마스크 착용
황사가 끼겠으며 오전에 바다의 물결이 다소 높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은뒤 흐림	5/17C
목포	구름 조금	6/15C
여수	구름 조금	7/15C
완도	구름 조금	6/16C
구례	구름 조금	2/18C
해남	구름 조금	5/16C
장흥	구름 조금	4/17C
고흥	구름 조금	4/17C
순천	구름 조금	5/17C
영광	구름 조금	4/15C
진도	구름 조금	6/17C
전주	구름 조금	6/16C
남원	구름 조금	2/17C
옥산도	구름 조금	8/14C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5m	목포 05:26	10:27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여수 11:32	05:4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5/20	9/20	9/16	7/18	7/17	6/17

꽃샘추위 물러가니 황사 공습

광주·전남 '주요보' 발령

지난 달 보다 농도 짙어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봄철 불청객인 황사가 찾아왔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 지역은 16일 오전부터 황사 영향권에 들겠다”고 15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15일 오후 황사 예비특보를 내렸다. 이번 황사는 올 들어 두 번째 황사로, 지난 달 20일 발생한 황사보다 농도가 다소 짙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기상청은 이번 황사가 17일 낮부터 점차 약해진 뒤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관계자는 “황사발생 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15~18도로 전날보다 다소 높을 전망이다.

한편 15일 오후 5시 현재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중이며,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군 특성화 고’ 금과공고

전문 기술병 52명 첫 배출

광주지역 유일한 군 특성화 고교인 금과공고가 첫 전문 기술병을 배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5일 “금과공고 군 특성화학과 제1기 졸업생 52명 전원이 이달 초 군 신체검사를 거쳐 군에 입대했다”고 밝혔다.

군 특성화 고교는 군·학 협정에 의해 군 첨단장비 운용과 정비 기술병

양성 등을 위해 선정된 학교로 전자·통신 등 과목을 이수한 졸업생들이 군에서 특기병과 유급지원병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 학교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군 특성화고로 선정됐으며 1년간 군 현장실습 등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 군 첨단전력의 핵심 기술인력을 양성했다.

이번에 입대해 특성화 1기생은 계도 차량 정비(24명)와 특수통신 정비(28명) 등의 분야에서 전문 기술을 발휘하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고흥 무인도는 멸종위기 동·식물 천국

수달·구렁이·삿 등 6종 발견

천연기념물 흑비둘기도 서식

고흥지역 무인도에 수달과 구렁이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6종과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흥군의 57개 무인도에 대한 자연환경조사 결과 수달, 구렁이, 지네발란(난초)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6종을 발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무인도에는 멸종위기 1급 종으로 수달·구렁이·매, 2급 종으로 검은머리물떼새·지네발란·삿 등이 발견됐으며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도 서식하고 있다.

만조 때 해안선과 간조 때 해안선 사이의 공간인 조간대에서는 희귀종인 뜰뽕기가 여러 섬에 분포하고,

기존 남서해안 조사에서 극히 드물게 보고된 남방계 해조류인 옥명굴도 일부 섬에서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금도 주변의 형제도와 준도는 구실갯바나무군락과 후박나무군락 등과 같은 상록활엽수림이 잘 보존된 것으로 관찰됐다.

특히 파도로 생성된 ‘시 아치(Sea Arch)’와 염분이 높은 물과 접촉해 암석 표면이 파이면서 생기는 염풍화혈(鹽風化穴)과 같은 다양한 지형이 수려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무학도는 화강암이 풍화돼 지표에 노출된 바위 봉우리인 돌, 바위에 갈라진 틈이 수직·수평으로 발달한 토르, 파도와 해류의 침식으로 형성된 해식애(바다 절벽)가 후박나무, 참식나무 군락과 어우러져 절경을 연출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제1회 곡례 산속 유꽃축제

기간 : 2009.3.19(목) ~ 3.22(일)

장소 :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옥천지구일원

개막식 : 3.20(금) 오후 6:30

<p>행사주최 전남도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수국립자연휴양림관리국 산수국 문화관광체육부 구례군 산수국립자연휴양림</p>	<p>주최 전남도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남도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수국립자연휴양림관리국 구례군 산수국립자연휴양림</p>	<p>주최 전남도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수국립자연휴양림관리국 전남도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수국립자연휴양림관리국 전남도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수국립자연휴양림관리국</p>	<p>주최 전남도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수국립자연휴양림관리국 전남도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수국립자연휴양림관리국 전남도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수국립자연휴양림관리국</p>
----------------------------------------------------------------------------------------	-----------------------------------------------------------------------------------	------------------------------------------------------------------------------------------------------------	------------------------------------------------------------------------------------------------------------

문의전화 : 061-760-3430, 3437